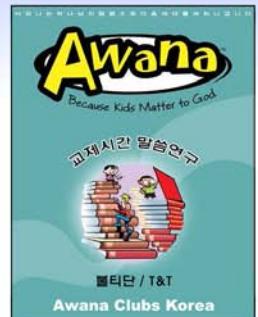


다른 삶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 목적 :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예를 들어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생각하게 한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며 살도록 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2. 여기 예화에 든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결과 두,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3.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자료 : 인형 두 개, 융판, 화판, 칠판, 분필, 성경 구절 카드



■ 말씀 준비(2~3분)

<인형극> – 내가 먼저 갖고 놀던 것이야! –

(두 인형이 서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들어온다. 한 인형은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놀던 공을 옆에 놓고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집어든다. 두 번째 인형은 그 곳을 집어든다.)

창이 : 야 그것 내 공이야!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이라구

창술 : 아니야 여기에 놀여 있던 거이야

창이 : 내가 잠간동안 거기에 놓아둔 것이야. 나는 공을 가지고
다시 놀려고 핸다 마이야

창수 : 흥 그렇지 않아. 너는 공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거야.

창이 : 그 공 빨리 주지 않으면 주먹으로 널 때릴거야!
한수 : 읊기고 있네 너 같은 소문친 주먹으로 나를 때리다니?

상우 : 끊기고 있는데. 나 같은 힘들지 누구나도 나를 때려죽이고
미안하지만 내가 공을 가지고 돌아야겠어.
창이 :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공을 나한테 주지 않고는
못 베길 걸!

창수 : 천만에 니가 공을 옆에 놔두고 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말한거야

한이 : (한수를 비껴서) 네 곳 내년

창수 : (당수를 들은지)네 창 네과
창수 : (단아니면 나)안 으로자? 먼저 잠이 보려니(이희동 티작)

여러분도 집에서 형제들과 이런 싸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는 어떤 슬기로운 핸드 핸드 있는 어떤 슬기로운

어린이들 가운데서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권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니요.

- 1) 무엇 때문에 싸움을 했지?
 - 2)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지요?
 - 3) 서로에게 난을 걸은 물었인가?

가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맘쓰여구(4~5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을까요?

여리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볼시다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형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37:2-36)
율법을 이용하여 시각 효과를 도우면 좋을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사이 좋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질투를 느낀 나머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미움이 커져서 요셉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태도에 매우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 말씀해석(3-4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7:1을 읽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접하라" (마7:12)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은가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칠판에는 “나는()게 ()을(를) 대접 받고 싶어요”라는 문장을 쓰고 어린이들의 대답을 적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도 역시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며, 그들의 감정을 생각해 줍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애베소서4:32절을 읽게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4:32)

항상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 1)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여러분의 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넘어지면서 여러분의 옷이 다 더럽혀 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2) 여러분이 학교 간 사이에 동생이 여러분의 물건을 운통 어질러 놓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 하는 장난감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3) 동생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여 동생에게 마구 육을 하고 싶어 못 견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4) 간식 시간에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여 여러분의 앞에 끼여들었습니다. 약이 올라서 그 아이를 밀어 내려다가 이를 전에 내 짹꿍이 나를 새치기로 끼워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말씀적용(1 ~ 2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잠시동안 조용한 기도시간을 갖는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어린이들을 권면한다.

이 번 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성경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은데로 대접하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